

한국 · 미국의 주택양식 의미 비교

김정근*

*주거환경전공 부교수

<요 약>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 주택양식을 파악하고 주택양식에 내재된 의미는 어떠하며 그 차이는 무엇인지 비교해봄으로써 주택양식에 대한 전체적 시각을 갖고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택양식과 관련된 의미에 있어서는 각 양식에 대해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반응이 어떠한지 그리고 특정양식에 대해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 따른 차이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 내용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주택양식은 역사성, 지역성, 현대성 등 다양한 경향이 나타났으나 우리 나라는 과시성이 중시되었으며 전통양식마저 단절되는 등, 다양성과 개성이 부족하였다. 디자이너측면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디자이너가 사용자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미국의 경우 주택양식 선호에 있어 계층적 지역적 또는 교육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과 달리 우리 나라는 경제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A Comparison of Meaning of Single Detached House Styles, Korea and U.S.

Kim, Jung Keun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notative meaning that the public infer from various styles of single detached house by comparing two countries, U.S and Korea. Previous

*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studies including architectural publications were the resource of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roto-typical styles in U.S. were Colonial, Tudor, Salt box, Contemporary, Farm and Mediteranean style and in Korea, They were Revised Traditonal, Flat Roof, Gabeled Roof and Complex Roof style. Second, main determinants of the design of houses in U.S. were the representation of the moderninty and history background in styles, not in Korea, They were the commodity value of house and representation of the status in a styles. Third, in Korea,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demographic factors were the most influential on the preference of house styles. It was suggested that the house style could be considered by the public only in economically stable societies

I. 서론

주택양식은 주택에 나타나는 미적인 표현 요소가 한 시대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한다.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은 디자인된 결과물이므로 주택양식의 결정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 까지 주택양식과 관련된 연구(Cherulnik & Wilderman, 1986 ; Sadalla, Vershure & Burroughs, 1987)에서는 주택에 나타나는 표현적 특징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여 선택된 주택을 통해서 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추론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는 양식화된 주택이 디자이너와 사용자 모두에게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미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이래 주택양식이 다양하게 발전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주거 문화 속에 역사적 양식과 현대 양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택양식을 창조하는 디자이너나 사용자의 측면에서 관련된 의미를 밝히는 경험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는 아직 까지 전통양식이외에 어떠한 양식이 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양식에 내재된 다양한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국 현대 주택의 양식과 관련된 선행연구(임창복,1998;전경화,1997;고인룡,1995;박춘식,1992)에서는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사회 변동론의 배경에서 주택의 공간형식별 특성을 비교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공간 구성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로 임창복(1998)은 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주요 구성요소의 형태적 분석을 “작가주택”과 “표준주택”으로 구분하였으며 고인룡(1995)은 평면형태 및 공간구성의 변화를 밝히기 위해 위상학적 그래프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전경화(1997)는 작품주택을 대상으로 공간구성상의 변화를 유형학적, 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박춘식(1992)은 다양한 단독주택 유형을 평면, 외부형태, 구조와 재료의 변화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거주자의 생활양식이나 사회 문화적 특성이 건축물의 내적 질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평면을 중심으로 연구됨에 따라 한 시대의 주택에 특징적 표현구조로 정의하는 주택양식이 평면유형 뿐 아니라 외부형태, 공간의 구성, 배열방식, 구조와 재료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특징의 통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택양식을 이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평면과 함께 주택 전면의 특징을

포함하여 조사한 연구(박춘식,1992;주정준,1991;장상근,1988)도 다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요소들의 양식적 표현 특징이 무엇인지에 중심을 두기 보다 평면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져 주택양식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제시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주택양식에 관련된 연구가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택양식에 관련된 미국과 한국의 선행연구를 통해 대표적 주택양식을 파악하고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며 비교함으로써 현대 주택양식에 관한 전체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한국 주택양식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택양식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둘째, 주택양식과 관련된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내재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디자이너와 주택양식에 있어서는 일반 사용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디자이너가 그 의미를 공유하거나 정확하게 평가하는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분석 결과를 통해 나타난 주택양식에 관해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영향 요인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은 현대의 단독주택으로써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지어진 주택으로 한정하며 주택양식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전면의 지붕, 창, 문, 장식, 재료와 색채 및 구성방식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를 내용분석 한다.

II. 주택양식과 의미

1. 주택양식의 개념

주택양식은 주택에 나타나는 특징적 표현구조를 뜻하는 것으로 조형적인 배열방법, 그 수량과 비례, 구성적, 기술적 요소의 취급 방법 등에 대한 형식 전체를 특징 짓고 있는 독자적인 양상을 말한다(두산백과,1985) 이러한 주택양식은 디자이너에 의해 설계되고 유행하여 양식으로 정착된다. 그러므로 양식화된 주택은 작품을 꿰뚫는 디자이너와 그 시대, 유파, 민족의 예술이념이 단적으로 표현되며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됨으로써 이해되도록 해주므로 주택양식에는 누적된 물리적 특징과 미적 특징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Nasar,1993).

일반적으로 양식은 궁전양식, 사원양식과 같이 종류, 목적, 재료, 장르 등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나 각각의 특수성이 개별적으로 양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부분의 조직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하나의 통일된 전체의 표현양식이 형성되는 것이다(두산백과, 1985). 그러므로 양식은 이들 각 부분의 종합 위에 이루어지며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창조하는 형식'으로서 각 요소를 특정 요인 아래 조직적으로 통일시키는 전체적 표현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양식은 비교와 대조에 의하여 그 특징이 선명해지는 특징이 있으나 이들 양식 현상의 밑바탕에 있는 인간의 감성적 파악의 형식을 대극적인 원리로 포착하여 양극간의 긴장관계를 양식 변천의 원동력으로 보고 그것의 반복, 교체에 의하여 형식 발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주택양식의 발생과 그 변천을 살펴보면 18세기 이전의 주택양식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고려하는 장식적인 측면이 양식을 주도하였고 그 바탕에는 고전주의 영향이 지속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기계, 기술이 발달되어 예술과 생활형식과의 관련을 짓기 위해 스틸(Jugndstijl)이라는 말을 독일에서 사용한 이래 근대 미학상의 술어로서 정착되고 양식사학을 형성 발전시켰다. 미술공예운동 이후 아르누보 등 양식이 가지는 특질은 19세기 당시의 생활에 알맞도록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자는데 있으며 그 목적은 실용을 위한 대상에 직접 관계한다는 이념으로 발전하였다.

19세기부터 추구되어온 미의 과학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이 조화된 실체로서 인간의 생활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민 경우, 1995). 기계와 예술이 서로 만남으로써 초래된 전통과 혁신 사이의 대립과 갈등, 미학상의 혼돈 속에서 새로운 양식을 모색하려 했던 끊임없는 노력은 근대적 주택양식이 나타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과거의 예술 양식으로부터 탈피하고 양식은 결정된 개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근대 생활이 요구하는 필연적인 조형으로써 성립한다(Breuer, 1931)는 이론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획기적 조형공간을 지향함으로써 주택디자인은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20세기초에 이르는 동안의 주택 양식사는 이념의 시대로 접어들어 주택 디자인의 주된 논의는 미적인 것(미의 절대성)과 기능적인 것(미의 공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택 양식에 내재된 두 가지 가치 규범으로서 중심과제가 되었다. 그 표현에 있어서는 용도, 재료, 구조에 따르는 필연적인 형태나 특징에 대해 무시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간결한 직선미를 강조하였으며 극도로 단순화된 구성 속에 추상적, 기하학적 형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와 건축재료의 규격화, 표준화에 따라 근대 주택양식이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근대 주택은 과거의 엄격한 고전적인 질서체계를 파기하게 되었고 개방적이고 가변적인 주거 공간의 개념인 국제주의 양식에 의해 전세계적인 주택 양식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무미건조하고 무성격한 공간에 대한 반동으로 1950년대 이후에는 복잡한 표현, 풍토성을 반영하는 표현, 역사적 양식의 인용, 조작, 변형에 의한 절충적 표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격식의 쇠퇴에 의한 권위적 축의 기피, 고전적 질서에 대한 반동 및 새로운 공간질서 창조에의 욕구로 인해 주택에서 독립적인 거실의 확보 등의 변화와 함께 주택의 독립된 공간성과 완결성의 주제로 변모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Nasar, 1993). 그러므로 현대 서양의 주택양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표면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고 공간구성파 구조 및 장식체계를 포함하는 표현 특성의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기존의 역사적 양식과 함께 다양한 양식으로 생성되고 발전하고 있다.

2. 디자이너와 주택양식

오늘날 주택은 건축가에 의해 디자인된다. 건축가가 주택 디자인을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공간을 형성하고 조직해 나가는데 이를 위해 건축가는 각 요소의 크기와 모양, 사용자와 인간의 움직임, 기능 등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여 하나의 체계에 의해 공간요소를 배열한다(Webber, 1982). 그러므로 건축가들의 주된 관심은 미적 체계에 대한 연구로서 구체적으로 공간의 형태와 배치, 외관의 표현 특징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다(Groat, 1982; Hershberger & Cass, 1974).

19세기 이후 디자이너의 미학체계는 하나의 주관적 이미지 같이 함축적으로 표현되는 내면적 특징(Wettman, 1968)이 건축적 규범을 이루어 왔고 이러한 특징은 '집단적 무의식'

으로 주택양식에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디자인 행위’나 주택양식의 발전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고객의 요구에 순응한 결과이기 보다 반동적 반응에 의한다(Marnar & Vodvarkar, 1970) 고하여 디자인 결과로 나타난 주택과 실제 의미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디자이너들은 양식의 경향이 무미건조하고 무성격하다고 하여 국제주의 양식을 거부하여 포스트모던 건축을 추진하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의미를 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Jencks, 1977). 예를 들면, 브라운(Brown, 1980)은 다윈론의 가치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벤츄리(Venturi, Brown & Izenour, 1972)는 대중이 ‘명백한 … 상징주의’를 요구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건축’이라는 상징주의가 내포된 포스트 모던 건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훌륭한 것이기는 하나 이들 건축가의 설계는 실제 사용자에게 호의적인 의미를 전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Nasar, 1993). 이에 대해 여러 연구(Canter, 1969; Hershberger & Cass, 1974; Leff & Deutsch, 1973; Nasar와 Kang, 1989a; Purcell, 1986)에서는 그 원인이 오늘날 건축가들이 그들의 성향(McCaulley, 1981), 교육과 경험(Michelson, 1968)에 따라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건축가들의 디자인 유형과 양식에 대한 가치지향성의 차이로 인해 건물에 대한 평가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즉, 건축가와 건축가가 아닌 사람들 간에 선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Delvin과 Nasar, 1989; Groat, 1982; Groat와 Canter, 1979) 건축가와 사용자간의 교육적 경험, 동기, 개인적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건축가가 사용자가 기대하는 의미를 잘못 판단한다는 사실도 나타났다(Hershberger와 Cass, 1974; McCaully, 1981; Purcell, 1986).

이러한 결과들은 근본적으로 건축가가 사용자의 선호를 고려하기 보다 ‘디자인 행위’의 모순된 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디자이너의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전달될 양식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일반 사람들의 열망에 좀더 부합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3. 주택양식의 인식과정

인간의 주택에 대한 인식과정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건물과 관련되지만 건물 자체는 아닌 특성을 통해 건축을 경험된다. 즉, 사람들은 건물에 대해 개인의 정신적 이미지를 반영하며(Moore, 1989), 그 표상과 건축물을 결합함으로써 건물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건축물(교회, 사무실, 또는 주택)이라거나 양식(모던, 포스트 모던, 튜더양식)의 인식과 경험은 그 물리적 특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상징적인 측면과 함께 경험된다. 예를 들면, 외관 양식이 다른 튜더양식과 농장 양식은 단독주택이라는 점에서 각각 동일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만, 주택의 가격, 성격, 가치,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나 일반 사람들이 갖는 주택양식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하나의 사물이 도구적 사용 이상의 함축된 인지적 과정의 결과로서 정의된다(Norberg-Schulz, 1965)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택양식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주택이 건축가에 의해 최초로 물리적 속성이 결정되어 주택의 속성과 형태적 구조는 독립적이지만 각 개인이 비슷한 형태적 구조(또는 형태적 구조의 종류)를 가진 다른 예들에 직면할때, 개인은 그것을 내적으로 범주화하여 외연적인 의미를 부여함에 따라 인식되는 것이다. ‘양식(style)’의 성립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므로 매우 역동적이며 개인이나 가족이 형태적 구조에 직면하는 빈도에 따라 인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관련된 예가 많을 수록 개인이 양식의 범주를 파악할 확률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양식은 개인 주관과 형태 시스템과 관련된 '형태적 구성'간의 상호작용으로 나온 결과(N. Schulz,1965)일 뿐 아니라 이러한 양식의 인식 구조를 통해 양식은 복잡한 상황을 조직화하고 단순화한다는 사실도 발견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번스윅(Brunswick,1956)은 양식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연구들을 제 공하였는데 이는 인구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도출한 추론의 확률기법을 이용하였다. 즉, 개인의 경험을 통해 추론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써 주택양식에 대한 오랜 경험과 반복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주택과 양식을 연관시키고 의미를 학습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제 이를 실험한 연구(Michelson, 1976; 1987)에서는 건축가와 일반 사람들 간에 교육, 수입, 사회 계층에 따라 주택양식을 다르게 본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이로 인해 주택의 외관이 적당한 이웃을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Cherulnik,1982)고 하였으며 중하위 계층의 선호 양식과 중상위 계층의 양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계층적 선호 양식이 다른 점도 밝혀졌다. 또한 주택의 물리적 특징의 선호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로써 위스콘신의 교외거주자들은 식민지 양식을 가장 선호하고(Tuttle,1983), 버팔로에서는 컨템포러리 양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여(Kinzy,1982) 주택양식의 선호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주택양식에 내재된 의미를 밝히는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준다.

Ⅲ. 미국과 한국의 주택양식과 의미

1. 미국의 주택양식과 의미

(1) 대표적 주택양식

미국의 대표적 주택양식에 대해 강(Kang 1990)은 개발업자가 지은 주택을 조사하고 건설업자와의 면접과 역사적 내용 분석을 통해 15개의 양식으로 분류하였다. 오하이오주 콜롬부스의 대학생은 이 양식들을 Q-분류²⁾(analysis of Q-sorting)로 분석하여 10가지 두드러진 양식으로 추출하였는데 농장형, 그리스(Greek)형, 스페니쉬(Spanish)형, 조지안(Georgian)/튜더형, 식민지형, 후렌치(French),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포스트 모던, 퀸 앤(Queen Anne), 이탈리아, 페데랄(Federal)이었다. 한편, 주택의 판매 수치를 조사한 연구(Nasar,1989)에서는 식민지형, 튜더형, 컨템포러리형, 농장형, 지중해형, 소금창고형으로 나누었으며 전국적인 판매 순위 조사에 의하면 식민지-컨템포러리-농장형-튜더형-소금창고형-지중해형의 순으로 선호를 밝히고 있다. 6개의 양식에 대한 사후연구에서는 거의 지중해형을 제외한 각 양식이 대표적인 양식임을 확인되었다. Kang(1990)이 분류한 양식과 비교할 때, 스페인양식과 지중해양식의 구별되는 특징이 부족한 것을 나타냈으므로 Nasar(1993)는 미국의 대표적 양식

2) Q-sort 기법은 응답자에게 특징기준에 따라 문항을 분류하여 측정 대상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법은 리커트척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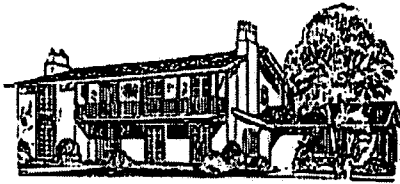
을 농장양식(Farm), 튜더양식(Tuder), 지중해양식(Mediterranean), 소금창고양식(Salt box), 식민지양식(Colonial), 컨템포러리양식(Contemporary)이라고 하였다. (그림1,2,3,4,5,6 참고).



(그림- 1) 농장(Farm)양식



(그림- 2) 6 튜더(Tudor) 양식



(그림- 3) 지중해(Mediterranean)양식



(그림- 4) 소금창고(Salt Box)양식



(그림- 5) 식민지(Colonial)양식



(그림- 6) 컨템포러리(Contemporary)양식

식민지양식은 미국이 식민지 시대 초기부터 건축된 양식으로 영국의 조지안 양식의 영향을 받아 장방형의 심플한 건물 형태에 대칭성을 강조한 외관을 갖고 있으며 창문과 기둥, 몰딩, 박공 장식이 고전주의 모티브를 채택한 역사적 양식의 특징을 갖는다. 튜더양식은 성채의 특징이 많은 장원 저택 양식으로 해머 빔 천장이나 하프 팀버 형식을 갖으며 끝이 뾰족한 아치가 특징이다. 소금창고양식은 소금을 저장하는 박스 형태에 유래한 것으로 커다란 박공지붕이 강조되고 장식없이 간소한 형태가 특징이다. 지중해양식은 더운 지중해 지방 특유의 창문 형태, 마감재와 색을 가지고 있으며 농장양식은 미국 남부지방의 기후와 생활양식 등 지역 특색에 따라 발달된 양식이며 컨템포러리 양식은 사치스러운 장식을 배제하고 재료의 자연스러운 특징을 살렸으며 기하학적 선 구성과 미적인 질감에 초점을 맞춘 모던한 특징을 갖는다. 그러므로 미국의 주택양식은 식민지와 튜더와 같은 역사적으로 유래한 양식과 기후나 풍토에 따라 발달한 지역적 특색이 강한 양식 그리고 현대의 미학 개념에 의한 모던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준다.

(2) 주택양식의 의미

① 디자이너 측면

주택양식에 있어 사용자들의 지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민지형이 첫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튜더형-컨템포러리-농장형-소금창고형으로 나타났다(Nasar,1993). 지위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선행연구 결과(Cherulnik,1982;Michelson,1976)와 일치함으로써 주택양식에 있어 지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월더만(Wildernman & Cherulnik,1986)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식민지형과 튜더형이 높은 지위로 인식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자들이 사용한 거대한 고전양식의 기둥, 전면 박공, 벽돌의 장식의 채택으로 소유자의 높은 지위의 상징하였기 때문이다. 낮은 지위를 상징하는 유형인 지중해형과 소금창고형은 실제적이고 효율성을 고려한 주택이며 소형의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된 결과 낮은 지위로 인식되었다.

주택양식에서 친밀감을 주는 양식은 시골이나 농장에 이어져 편안한 생활을 연상시키는 농장양식이었으며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은 친밀감과 지위의 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식민지형은 지위에서 가장 높으나 친밀감에서는 가장 낮았으며 바람직함에는 중간 수준이었다. 반면 농장형은 친밀감은 높지만 지위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주택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는 일반 사용자보다 컨템포러리양식을 좀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며 튜더양식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식민지 양식을 비교적 친밀하지 않으나 소금창고 양식은 좀더 친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디자이너들이 농장양식의 바람직함과 식민지 양식의 친밀감을 과소평가하고 대중에 대한 지중해 양식의 친밀감과 식민지 양식의 바람직함에 있어 지위의 상징을 과대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의 주택양식 선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였다(Nasar,1993). 이는 디자이너들이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양식에 대한 친밀감을 사용자보다 과소평가 하였으며 사용자의 선호에 대해 체계적으로 판단하지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이너와 주택 사용자와의 선호나 평가에 대한 차이는 강도의 차이를 능가하여 방향의 차이에도 나타났는데, 갱스(Gans 1978)는 디자이너들은 '하이 스타일'을 좋아하고 대중이 선호하는 '대중적 양식'을 거부하였다고 하였고 그로트(1982; Groat & Canter, 1979)는 포스트 모던 건물에 대한 디자이너와 회계사들의 반응을 비교한 연구에서 회계사들은 양식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건축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양식을 좋아한다고 하여 두 집단은 건물을 평가하는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회계사들보다 좀더 다양한 집단을 비교한 다른 연구(Devlin & Nasar, 1989)에서도 교육받은 일반인이 좀더 분명하고 쾌적한 것을 '대중적인' 양식으로 판단한 반면, 디자이너들은 '하이 스타일'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사회문화경제적 측면

사회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양식에 대해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 비교한 경험적 연구(Newman,1972; Venturi & Rauch,1977)에서는 교육수준, 직업 지위,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도 건축물 양식으로부터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지위, 친밀감에 대해 의식(Copper, 1976;Duncan, 1973;Rapoport, 1982)한다는 점과 환경적 단서로부터 유추된 사회적 지위의 중요성을 확인(Duncan;1973,Royse;1969)해 주었고 주택의 규모, 기후, 건물재

료, 주거비와 인종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역적 차이의 원인은 도시 규모에 있어 개인의 환경 경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Wohlwill & Kohn, 1973) 기후, 재료, 문화와 같은 산물은 서로 다른 기대와 양식의 선호를 창출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2. 한국의 주택양식과 의미

(1) 대표적 주택양식





지금 까지 이루어진 현대 주택 외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주택 외부 형태의 변화가 60년대는 1층 주택기, 70년대는 혼용기, 80년대는 2층 주택기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 요인은 주택 형태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하였다(장상근, 1988). 대표적 주택 유형으로는 60년대 한양 절충의 우진각 지붕형, 평지붕형이었고, 70년대 뽕족지붕, 박공지붕형으로 80년대 물매 낮은 박공지붕형, 겹지붕형, 눈섭지붕형으로 분류하였는데(박춘식, 1992), 이러한 양식은 주로 지붕의 형태를 중심으로 구분된 것이었다. 주정준(1991)의 연구에서도 주택의 표현 요소 중에서 지붕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50년대 박공지붕, 60년대 모임지붕, 우진각지붕과 합각지붕, 70년대 박공지붕, 80년대 모임과 우진각지붕이 대표적이라고 하였고 지붕의 경사방향이 초기에는 남북방향이었다가 동서 또는 서방 방향으로의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김정근(2000)은 작가주택과 집장사주택으로 구분하여 현대 주택 전면에 나타나는 각 요소별 변화를 분석하고 대표적 양식을 추출한 결과, 개량한옥양식, 평지붕양식, 박공지붕양식, 복합지붕양식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식을 특징 지우는 표현 요소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로서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현대 주택을 대변하는 대표적 양식이라고 하겠다.

한국 대표적 주택양식의 변화를 살펴보면(<표-1>참고), 사용자 선호가 잘 반영되었던 집장사주택인 개량한옥양식, 평지붕양식이 현대 전반기 유행하였으나 점차 고급주택인 작가주택의 박공지붕양식을 모방하여 발전하였으며 시대가 흐를수록 개량한옥양식이 단절되는 등, 양식의 종류와 다양성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양식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나라 현대 주택의 일반적 표현 특징은 하나의 매스를 지향하고 지붕이나 몸체가 크게 강조되나 전면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며 비대칭적 평면의 영향으로 비대칭의 외관이 일반적이고 창과 문 역시 비대칭적 구성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표현 요소는 양식별 차이 보다 시대에 따라 크기와 재료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어 양식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붕의 형태가 양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으며 그밖에 전면에 사용된 재료의 질감과 색채 및 구성이 양식을 결정하는 주요소로 나타났다.

각 양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박공지붕양식은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다양하게 표현된 대표적 작가주택으로 서양의 박공과 같은 고전 양식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 양식이다. 지붕크기가 강조되고 몸체가 대형화되는 70년대 박공지붕양식은 레이트모더니즘적 경향을, 그리고 80년대 박공지붕양식은 한국적 모티브의 장식문양과 전통 주택의 디테일을 채택하여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이 나타났다. 90년대 다양한 지붕 형태의 복합지붕양식은 여러 매스의 구성으로 인해 겹으로 된 지붕, 복잡한 입면 구성이 특징이며 창호와 문이 표현의 주요소

<표-1> 한국 대표적 주택양식과 변화

구 분	1950	1960	1970	1980	1990
<p>개량 한옥 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주택 표현 요소 사용. · 하나의 담장으로 연결되는 전면 · 목재들의 유리창, 벽돌,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벽 마감과 전통장식 				
<p>평지 봉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지봉 · 장방형의 기하학적 외관 · 유리창의 배치, 돌림띠 장식의 수평선을 강조한 구성 · 장식없이 평편하고 단순한 전면 				
<p>박공 지붕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 박공, 들인자형, ㅁ측형, 낮은형 등 다양한 박공지붕의 변화. · 수평선의 발코니, 사선의 처마, 전면 요철에 의한 수직적 분할 등 강하고 다양한 선과 비대칭의 면 구성을 구사 · 재료 질감과 색이나 전통모티프의 추상화를 이용한 장식 · 대형 지붕의 과시적 외관 추구 				
<p>복합 지붕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겹의 지붕과 다양한 지붕 형태 · 외곽 형태 불분명, 입면의 요철 · 사선, 왜곡된 곡선에 의한 개성적 구성과 시각적 긴장감(창호형태, 크기 다양) · 하이테크의 신재료 사용 				

로 대두되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나타내주었고 값비싼 하이테크의 신재료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양식은 주택 건립이 급감한 상황에서 주로 상류층을 대상으로 디자이너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주택양식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양식이다. 그러나 대단히 조형적인 표현과 매스의 분할과 이입 등에 의해 주택 전면이 이전과 달리 요철이 심해지는 변화는 선과 면 구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며 해체주의적 특성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의 현대 주택양식은 신고전양식, 모더니즘, 레이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와 같은 서양의 표현 양식이 모두 도입되어 의미있게 표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양의 영향이 크고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주택양식의 의미

① 디자이너 측면

한국의 주택양식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면 전반기에 대표적 주택양식이었던 개량한옥양식은 그 특징이 전통성의 지속이라는 점에 있어 바람직함과 친밀감이 높게 평가되지만 주택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산된 주택(주정준,1991)이라는 점에서 디자이너와 사용자에게 질적으로 다소 낮게 인식됨에 따라 지위에 있어 다소 낮은 주택이라고 하겠다. 1960년대 디자이너는 열악한 환경 속에 주택 보급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평지붕과 같은 새로운 양식의 도입과 함께 형태적 우수성, 기능적 합리성,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인정받아 상품적 가치를 획득(박춘식,1992)함에 따라 디자인이 사용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주로 디자이너에 의해 주도되는 박공붕양식이나 복합지붕양식은 거대한 지붕 형태나 규모에 있어 과시적 표현이 사용자에게 높은 지위를 상징(장상근,1988)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과도한 표현이 친밀감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양식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서양의 표현 요소인 뾰족 지붕, 발코니 등은 일시적 유행에 그쳤으며(박춘식,1992), 또 작가주택에서만 나타나는 유기적 평면 설계에 의한 곡선적인 외관은 이 시기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양식으로 인정받음(손세관,1997)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전경화, 1997)으로써 디자이너의 주택 설계가 사용자의 선호와 차이를 나타내 주며 사용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 주택이 70년대와 80년대 과도한 규모 및 상층 지향적 장식,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공간 확보를 위한 계단의 입면화로 나타나는 특징(임창복,1988)은 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선호를 상품적 가치에 일차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 단독주택 건립이 감소되었고 그 이유가 주택의 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데다 관리성, 편리성, 경제성에 있어 모두 아파트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최미라,1995)이라는 지적은 주택 디자인에 있어 실제 대중의 선호보다 대중의 왜곡된 가치 반영이 사용자의 외면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대중이 선호하는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파트를 구입하는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이 제도적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대중의 편리성, 기능성에 있으며 디자이너가 대중의 변화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디자인에 있다는 지적(최미라,1995)을 통해서도 이 시기 디자이너는 주택 디자인에 있어 사용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선호에 있어 사용자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사회문화경제적 측면

1960년대 이후 아파트 보급과 이를 부양하는 정책, 일시불의 주택 구입과 주택 금융의 한계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는 전 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한동근,1987)이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상품으로 인식되었으며 소유를 위한 재정적, 심리적 투자로 인해 주택의 표현 특징에 대해서는 2차적인 고려 대상이 되었다(최미라,1995). 이는 주택 소유 상태와 주거 유형은 관계가 깊다는 렌트(Rent,1978)와 차이가 나는 결과이며 우리 나라의 주택 소유 욕구는 주택 양식의 선호보다 소유를 위한 제도적, 경제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그런데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주택 소유와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 연구에서는 월소득과 같은 가구의 경제적 능력 뿐 아니라 부부 연령, 직업,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박강철,1990;송대호,1993) 주택양식 선호에 있어서도 이들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90년대 들어 200만호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파트 건설의 공급과잉은 미분양을 초래하였고 사람들은 주거 소유권보다 사회 경제적 동질성을 선호하는 변화(최미라,1995)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소유권 상승이나 경제적 이유로, 중산층은 주택의 규모, 근린환경 및 물리적 환경개선(백금화,1990)을 이유로 주택을 구입하는 변화가 나타났고 주택유형의 선호에 있어서는 서민층은 다세대 주택, 중산층은 아파트, 상류층은 단독주택 구입으로 나타나 이러한 점은 서양의 주택 선호에 있어 계층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이라는 연구(Arias,1993)와는 차이를 나타내는 점이며 주택양식의 선호에 있어 계층별, 주택 유형별 선호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결국 우리 사회는 주택양식의 선호보다 주택 소유가 우선되고 주택 구입에 있어 일시불의 문제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우선되어 사회적 계층별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택 소유권에서 사회 경제적 동질성이나 질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경향, 주택수요의 탄력성 및 교외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독주택의 선호의 가치에 변화가 나타나 선호의 다양성이 기대되며 이러한 영향이 주택양식에 새로운 변화를 줄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 주택양식을 파악한 결과, 미국은 콜로니알, 튜더, 소금창고, 지중해, 컨템포러리, 농장양식이었으며 이 양식들은 역사성, 지역성과 현대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개량한옥, 박공지붕, 평지붕, 복합지붕양식이었으며 지붕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표현 경향이 강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지위를 상징하는 양식은 미국의 경우 식민지와 튜더양식이었으며 우리 나라는 박공지붕양식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양식은 미국의 경우 역사적 양식인 반면 우리 나라는 규모의 과시적 표현 특징에 의한다는 점이 차이로 나타났다. 친밀감을 나타내는 양식은 미국의 경우 농장양식이었으며 한국은 개량한옥양식과 평지붕양식으로 미국과 한국은 마찬가지로 지역적, 문화적 특징이 강하게 반영된 유사점을 나타내었다.

미국과 한국의 주택양식 의미를 파악한 결과, 사용자 측면에 있어 미국의 주택양식이 교

육, 직업 지위, 연령, 지역과 같은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나타내는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주택 소유가 우선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가급등에 의한 단독주택 건립의 경제성 하락에 의한 사용자 가치 선호의 변화로 나타내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함을 나타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택양식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만이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나타내주고 사회 인구학적, 경제적, 문화적, 지역적 선호에 차이가 나타나는 미국 주택양식의 의미(Narsar,1993)와 다른점 이라고 하겠다.

디자이너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사용자의 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디자이너와 사용자의 선호가 다르다는 데 주요인이 있는 것이므로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목표 설정과 방법에 있어 디자이너의 개인적 성향과 선호보다 사용자의 선호를 더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미국과 한국 디자이너의 차이점으로는 미국의 주택 디자이너가 새로운 주택양식의 창조에 노력한 점과 달리 우리 나라 주택 디자이너는 서양 조형 요소 도입과 모방에 급급하여 독자적인 주택양식 창조에 미흡하였다고 하겠으며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계획, 지위 상징성과 과시적인 디자인이 전체적 경향으로 사용자의 주택 선호보다 가치를 반영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변화를 주도한 지붕과 달리 전면과 외관 형태가 오랜동안 지속되고 전면구성이 비대칭인 특징은 좌식과 같은 한국 전통 문화와 생활양식에 맞추어 전통요소와 서양의 도입 요소를 적절히 절충한 결과라는 점에서 고유한 특징의 지속이라고 하겠으며 사용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디자이너의 의지와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주택양식에 내재된 의미를 밝히기 위해 문헌에 한정하였으므로 미국과 같이 경험적 연구에 의한 구체적인 차이를 알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실증적이며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양식에 내재된 함축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고인룡(1995), 한국주거건축의 평면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경수(1989), 한국현대건축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김정근, 이원주(2000), 현대 주택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1950년대에서 1990년대 까지를 중심으로, 생활과학논문집 제2권 1호 pp. 43-57
4. 민경우(1995), 디자인의 이해, 서울: 미진사
5. 박춘식(1992), 1950년대 이후 단독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송인호(1990), 도시형 한옥의 유형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공학박사학위논문
7. 임창복(1988),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공학박사학위논문.
8. 장상근(1988), 주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주정준(1991), 한국현대 주택 평면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전경화(1997), 우리 나라 작품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 및 그 변화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최상훈, 박강철(1995), 거주자의 상황성에 따른 주거 유형별 규모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1권, 3호, 통권 775. PP.37-47.
12. 최외선 외(1998), "생활과학의 이해", 형설출판사.
13. 한국디자이너협회(1999), 한국의 현대건축: 기문당
14. _____(1985), 두산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5. Arias, Ernesto G.(1993),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England, Athenaeum Press Ltd.
16. Brunswik, E.(1956), Perception and The Representative design of psychological experimen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7. Canter, C.(1969), An intergroup comparison of connotative dimensions in architecture, Environment and Behavior, 8, pp.239-264.
18. Cherulnik, P and Wilderman, K.(1986), Symbols of status in Urban Neighborhoods Environment and Behavior, 18, PP.604-622.
19. Cooper, C.(1976), The House as a Symbol of Self, In J. Lang, Designing for Human Behavior: Architecture and the Behavioral Sciences.
20. Duncan, J.(1973), Landscape taste as a symbol of group identity: A Westchester County Village, The Geographical Review, 63, 334-355.
21. Devlin, K. and Nasar, J. L.(1989), Beauty and the beast: Some Preliminary Comparisons of "Popular" vs. "High" residential architecture and public vs. architect judgments of sam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9, pp.333-344.
22. Fusch, R and Ford, L.(1986), "Architecture and the geography of the American City", The Geographical Review, 79, pp.324-340.
23. Gans, H.(1978), Towards a human architecture: A sociologist view of the profession,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2, 26-31.
24. Groat, L.(1982), Meaning in Post-Modern architecture: An examination using the multiple sorting task,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 pp.3-22.
25. Hershberger, R. G. and Cass, R.(1974), Predicting user responses to Buildings, In D. H., Carson(ed.) Man-Environment Interactions, E.D.R.A. 5, pp.117-143.
26. Jencks, Charles(1977), The Language of Post-Modern Architecture. New York, Rizzoli.
27. Kang, J(1990), Symbolic inference and typicality in five taste cultures. Unpublished dissertation, Columbus, Ohio: The Ohio State University.
28. Lang, J., Marans, R. W. & Zehner, R.(1970), Planned Residential Environments. Ann Arbor, MI: The Survey Research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
29. Michelson, W.(1976), Man and his Urban Environment, Reading M.A: Addison Wesley.
30. Michelson, W.(1987), Groups, Aggregates and the Environment, In E. H. Zube,(Eds.), Advances in Environment, Behavior, and Design, Vol.1, pp. 161-185. New York:Plenum.
31. Narsar, J. L.(1993), Connotative Meanings of House Styles, England, Athenaeum Press Ltd.
32. Nasar, J. L. & Kang, J.(1989a), A post-fury evalu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design competition for a center for the visual arts, *Environment and Behavior*, 21, 464-484.
33. Noberg-Shulz, C.(1965), *Intentions in Architecture*, Cambridge, MA: The M.I.T Press
 34. Purcell, A. T.(1986), Environmental perception and affect: A schema discrepancy model. *Environment and Behavior*, 18, 3-30.
 35. Rapoport, A.(1982),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A nonverbal communication approach*, Beverly Hills: Sage.
 36. Royse, D. C.(1969), *Social inferences via environmental cues*, Doctoral Dissertation, MIT, Cambridge, Mass.
 37. Sadalla, E.K., & Burroughs, J.(1987), Identity symbolism in housing, *Environment and Behavior*, 19, 599-587.
 38. Watkin, D.(1977), *Morality and Architec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orlorado.
 39. Wohlwill, J. F. & Kohn, I.(1973), The environment as experienced by the migrant: An adaptation-level view,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4, 35-164.